

성도착증 · 성폭력

♥ 성도착증 - 비정상적인 성장 배경이 큰 원인

13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3천만 명 이상의 죽음을 불러왔던 20세기의 가장 악명 높은 지도자 히틀러. 그는 비엔나의 미술학교 입시에 두 차례나 실패했다. 40세 때는 어린 조카 겔링과 2년 동안 내연의 관계를 맺었다.

그녀를 대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기묘한 누드화를 그리며 확대했다. 건디다 못한 겔링이 권총으로 자살한 다음 에바 브라운을 만났다. 히틀러보다 스물세 살이나 어린 에바의 지능은 백치에 가까웠지만 매우 탄탄한 체격과 아리안족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에바에게는 한 가지 결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질이 너무나 얇아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여러 번 수술 끝에 치료에 성공했지만 이 수술을 성공시킨 산부인과 의사는 곧 살해당했다.

1930년대에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발기부전증 환자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하일 히틀러'라는 경례법과 대중 앞에서 박수를 칠 때의 히틀러의 특이한 동작이 그런 소문을 나돌게 하였다고 한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는 발기 부전 환자가 아니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지저분한 성도착증 환자였다. 많은 여배우들이 히틀러와 동침하고 나서는 비밀경찰에 의해 살해되거나 원인 모르게 죽었다. 그 비밀이 퍼져 나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회생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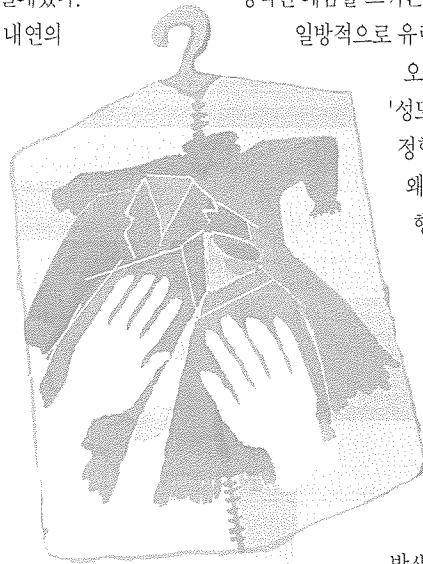
성도착증에는 여성의 속옷을 모으거나 긴

손톱을 좋아하는 등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가벼운 증상도 있다. 그러나 으스스한 곳이나 버스 안에서 상대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음경을 내보이며 성적 쾌감을 얻는, 힘오 받기 알맞은 노출증도 있다. 또 망원경 따위로 이웃 아파트 창문을 엿보는 관음증, 지저분한 전화로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행위 등은 타인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유린하는 성도착증이다.

오늘날 성의학 이론에서는 '성도착증'이라는 말보다는 '비정형적인 성행위'라는 용어를 쓴다.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성적 이상 행위는 법이나 사회적 규범에 의해 결정되는 것뿐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원론적인 의미에서 성적 행동에는 '비정상'이라는 개념이 없다. 예를 들어 3살 먹은 어린 아기가 자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비정상은 아니라는 말이다.

시사적인 사실은 일본의 강간 발생률이 미국에 비해 약 16배나 적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지만, 동양에서는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냐 아니냐 라는 가치 기준이 덧붙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동양적 사고 아래에서는 성적 이상 행위가 그렇게 흔히 일어날 수 없다는 이론이다.

성도착증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소나 호르몬 이상보다 어린 시절의 성적 확대나 부모의 비정상적인 성행위 등 부모의 성적 가치관이 부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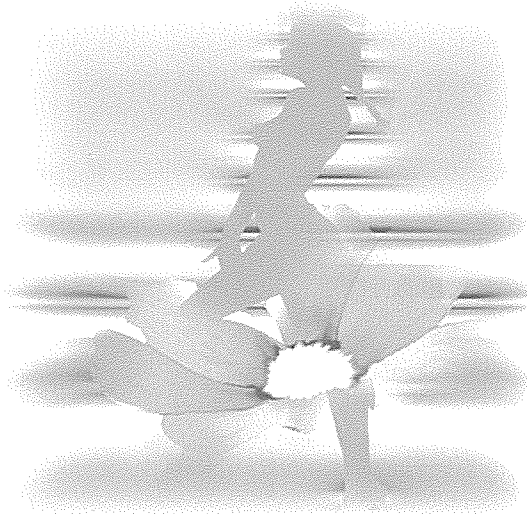


성도착증에는 여성의 속옷을 모으는 등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가벼운 증상도 있지만 으스스한 곳이나 버스 안에서 자신의 음경을 내보이며 성적 쾌감을 얻는, 힘오 받기 알맞은 노출증도 있다. 또 이웃 아파트 창문을 엿보는 관음증, 전화로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행위 등은 타인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유린하는 성도착증이다.

성도착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강간법 같은 경우는

남성호르몬을
억제시키기 위해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도착증의
치료는 발기 부전,
조루, 여성
불감증, 질
경련증 등과 달리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이는 성도착증
환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므로
치료를 받으려
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20세기 중반의 빛나는 성 의학자였던 라이히는 인간 내부의 가장 심층적인 곳에 “자연적인 사회성과 성욕, 노동을 자발적으로 즐기는 성향,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들 본능들이 성 부정적 사회 문화나 복종적이고 억압적인 부계 사회로부터 억압을 받았을 때 가학증, 탐학증, 호색성 질투 그리고 모든 종류의 성도착증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히틀러의 경우, 그 아버지는 유대인이었던 상점주인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할머니가 낳은 자식이고, 어머니 클라라는 강간에 가까운 결혼을 하였고, 그를 제외한 두 명의 형제들은 심한 정신 지체 증상을 보여서 그 자신의 피가 오염이 되었다고 믿었다.

하나의 성도착증은 다른 종류의 성도착증과 혼히 이어지고 나아가서는 인격 장애를 낳는다. 한 사람의 성도착증 환자를 따라간 독일 국민들과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6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한을 생각해 보라.

♥ **성폭력** - 추근거릴 땐 단호히 '안 된다'

성폭력이란 강간, 어린이 성 학대, 성희롱 등을 전부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요에 의하여 성적 행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강요라는 개념에는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강제나 은근한 유혹까지도 경우에 따라 포함된다. 모든 형태의 성폭력 중에서 가장 심한 형태는 강간이다.

서구에서는 여성이 평생 동안 강간을 당할 확률이 평균 20%나 된다. 20명 중 1명이 강간을 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이 일생 동안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인 10%보다 두 배나 높은 수준이다. 특히 15세에서 24세까지의 여성이 더욱 위험하지만 어떤 연령의 여성도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강간의 90% 정도는 전혀 보고도 되지 않는다. 또 경찰에 고발된 강간 건수의 5% 정도만 성공적으로 기소되어 피의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놀랍게도 이 강간의 80%는 아는 사람에게 의해 저질러진다.

남성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억압적인 사회가 갖고 있는 성 의식의 이중적 잣대가 이런 성폭력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남성은 한 여자를 정복하는 것을 남성다움의 표현 가운데 하나라고 배우며 자란다.

구애를 먼저 해야 남성다운 남성이라는 것도 성폭력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성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남성은 먼저 성적인 행동을 하여야 하고 여성의 저항감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을 한낱 사물이나 재산으로

생각하여 '흠칠 수 있는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보는 아주 잘못된 생각 중의 하나가 여성이 무의식적으로 강간을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말로는 거부할 하면서도 속으로는 원한다고 생각하는 남성들도 있다. 남성들은 대개 여성이 유혹적인 옷을 입고 같이 술까지 마시면 걸으려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해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 역시 성폭력의 원인을 제공한다.

1978년도에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코스 보고서'에 따르면 25%의 여성이 남성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서, 8%가 술이나 약을 먹었기 때문에, 9%가 신체적인 힘에 못 이겨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고 대답했다. 이미 20여 년이 지난 조사 통계이나 그 수치가 예상롭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뿌리깊은 유교 사상에 따라 여성들에게 수동적이고 상냥하며 정숙해야 한다고 가르쳐 왔다. 오늘날의 성폭력 급증은 이러한 사회 문화적 풍토가 낳은 현상일 수도 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78%가 '노'라고 얘기할 수 없었기에,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64%가 지속적인 남성의 요구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성만이 성폭력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들도 전체 성폭력 피해자의 10%에 달할 정도로 성폭력을 당한다는 보고가 있다. 전체 남성의 16%는 강요된 성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인데, 9%는 대학

시절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응답했다.

동성애자들의 12%, 게이들의 12%, 레즈비언의 31%가 파트너의 강요에 의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관계를 하였다고 한다.

이런 성폭력의 해결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교육이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과과정에서 이성간의 감정,

기대, 욕망으로부터

시작하여 임신, 출산,

성병, 그리고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내용까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몇몇 학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분명하게 이런 성폭력의 빈도가

줄어든다고 한다. 또 여성이 아예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이나 행동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 남성의 4분의 3 이상은 단념한다는 보고도

있다. 일단 '노'라고 대답할 경우, 더 이상 추근거리면 강간 미수에 해당한다는 것도 확실히 말해 두는 게 좋다.

성폭력이라는 용어에는 인간을 움직이는 무의식적인 두 개의 힘이 있다. 성이라는 요소와 공격성이라는

요소가 그것이다. 흔히 사회가 성적으로 개방될수록

성폭력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지만 성적으로 개방된 북

유럽 사회의 성폭력 빈도는 현저하게 낮다.

오히려 일반적인 폭력 빈도가 높은 사회에서 성폭력도

증가한다. 각 개인이 누리는 성적인 개방과 즐거움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성폭력은 중요한 범죄 행위이다. [7]

